휴가철·변덕 날씨 어린이 위생 '비상'

광주에 무균성 수막염 확산

의심 환자 절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물 끓여 마시고 손씻기 생활화가 최선

광주지역에서 무균성 수막염이나 수족구병, 급성 심근염 등 어린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초기 고열이나 두통, 구토, 발진 등 가벼운 증상에서 시작해 뇌염이나 뇌수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져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어린이나 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 지역 소아과를 찾은 무균성 수막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42건 중 1건에서만 확인됐던 엔터로바이러스가 4월 28건 중 4건, 5월 33건 중 14건, 6월 107건 중 48건, 7월엔 114건 중 64건이 발견됐다. 특히 지난달에는 검출률이 56.1%까지 증가했다.

엔터로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호흡기 분비물은 물론, 침이나 가래, 코 등 분비물이 묻은 물건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질병은 주로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서 가을철까지 지속되며,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으나 주로 3세 이하의 유아에서 발병되는 것이 특징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엔터로바이러스가 다양해 현재까지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와 접촉을 삼가고, 물 끓여 마시기,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빈곤의 대명사' 머릿니 기승

장발 유행 초등학생 사이 급속 번져

동네 약국. 퇴치약 입구에 배치 판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둔 주부 이모(38·광주 광산구)씨는 최근 아이들의 머리카락 속을 보고 깜짝 놀랐다. 두 아들의 머리카락 사이로 머릿니가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캐(이의 알) 수십개도 머리카락 곳곳에 자리를 틀고 있었다.

이씨는 "머릿니 퇴치약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을 갔더니, 머릿니 약이 약국 입구에 비치돼 있더라"면서 "머릿니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는 약사의 말을 듣곤, 할 말을 잃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구 쌍촌동에 사는 또 다른 학부모도 "지난달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8)이 머릿니에 걸려 가족들에게도 옮기는 바람에 퇴치약은 물론 집안 대청소까지 해야 했다"고 말했다.

광산구 송정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올 초부터 머릿니 퇴치약을 사러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빈곤의 상징이던 머릿니가 광주지역 초등학생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다.

의학전문가들은 이같은 갑작스런 머릿니의 출현에 대해 젊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관리 소홀과 청소년들의 장발 유행, 방역 당국의 무관심 등을 꼽았다.

11일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머릿니에 걸린 학생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학생들의 보건을 책임져야할 교육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보건담당은 "머릿니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삼식 상무 맑은 피부과 원장은 "청결이 일상화된 요즘들어 머릿니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장발 유행 등 변화된 사회 풍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통폐합 성과 전국 9개 大 중 꼴찌

100점 만점에 67점

2005년 이후 통폐합이 이뤄진 전국 9개 국립대 중 여수대와 통합한 전남대가 통폐합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폐합 평가팀'을 통해 시행한 '2008년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 사업 연차평가 실시 정책 연구'에서 전남대는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았다.

이는 86.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대(밀양대와 통합)에 비해 무려 20여점이나 낮은 점수이며, 9개 대학 평균 점수인 76.4점 보다도 턱없이 낮다.

평가항목과 배점은 ▲구조개혁 실적 40점 ▲특성화 실적 35점 ▲국고지원금 운영 효율성 15점 ▲대학 자체 평가 목표의 적정성 5점 ▲향후 추진 계획 5점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는 여수캠퍼스와 광주 캠퍼스 간 시너지 효과나 특성화 전략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대는 이공대와 사회문화대를 폐지하고 두 학교의 산업대를 통합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입학정원은 2004년 대비 16.6%(935명)를 줄여 의무감축 규모의 112%를 달성했다.

부산대에 이어 2위와 3위에 오른 충주대와 제주대도 각각 83.5점과 81.2점 등 높은 점수를 얻어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2008년 한 해만의 성과를 놓고 보면 전남대의 통폐합 성과가 가장 낮지만,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동안의 성과를 평균으로 낼 경우 전국 꼴찌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화물차·승합차 크게 줄었다

영세업자 주로 운행…암울한 '서민경제' 반영

승용차 등록은 증가

올들어 광주지역 승용차는 늘고 화물차와 승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점포나 영세업자가 주로 운행하는 화물차 수가 특히 큰 폭으로 감소해 '서민경제'의 암울한 실정을 반영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48만4천111대로, 지난해 말 47만4천105대에 비해 1만6대(2.11%)가 증가해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는 평균 0.93대로 늘어났다.

승용차가 1만446대, 특수차가 21대 늘어난 반면, 화물차는 267대, 승합차는 194대가 각각 줄었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치구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북구가 15만6천514대로 전체의 32.3%, 광산구가 12만150대로 24.8%를 차지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인구 수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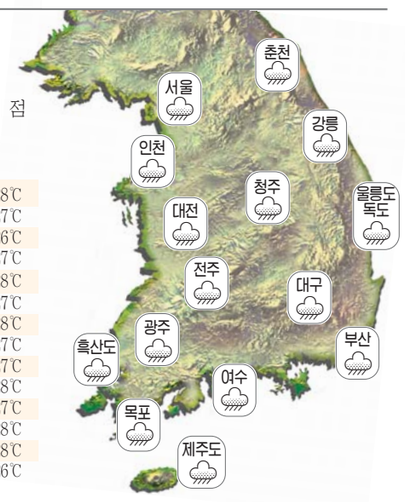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0분 / 해짐 19시 25분 — 달뜸 22시 18분 / 달짐 11시 35분

국지성 호우

흐리고 비가 온 뒤 밤부터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4/28℃
목 포	흐리고 비	24/27℃
여 수	흐리고 비	24/26℃
완 도	흐리고 비	24/27℃
구 례	흐리고 비	24/28℃
해 남	흐리고 비	24/27℃
장 흥	흐리고 비	24/28℃
고 흥	흐리고 비	24/27℃
순 천	흐리고 비	24/27℃
영 광	흐리고 비	24/28℃
진 도	흐리고 비	24/27℃
전 주	흐리고 비	25/28℃
남 원	흐리고 비	23/28℃
흑산도	흐리고 비	23/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2.0~4.0m
먼바다	남~남서	2.0~4.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5:41 18:21	10:56 23:19
여수	00:00 12:45	06:16 18: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3/33	23/33	23/33	22/33	23/32

광주·전남 등 지역 교육청

주민 서비스 기관으로 재편

이르면 2011년부터 광주·전남 24곳 등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이 학교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개편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 교육청을 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4개 시·도 교육청을 시범 운영 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내려받은 업무를 단순 집행하거나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치중했던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학교,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